

공공시설의 여가프로그램 이용실태 분석 -중년기와 노년기의 비교를 중심으로-

The Use of Leisure Program in the Public Community Facilities
-Comparing the Middle-aged with Aged-

계명대학교 가족복지전공
부 교수 홍 성 희
여주대학 가정학과
조 교수 김 성 희

Dept. of Family Welfare, Keimyung University
Associate Prof. : Hong, Sung Hee
Dept. of Home Economics, Yeojoo Institute of Technology
Assistant Prof. : Kim, Sung Hee

〈목 차〉

- | | |
|------------------|-------------|
| I. 문제의 제기 | IV.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factors affected on the leisure participation, leisure satisfaction and leisure effect of the middle-aged with those of the aged who were participated in the leisure program of the public community facilities. The sample of the study consisted of 218 middle-aged and 163 the aged living in Seoul and Daegu. Frequencies, means, χ^2 ,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were employed for the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middle-aged had more positive leisure attitude than the aged, less leisure participation, and more leisure satisfaction. The factors affected on the leisure participation of the middle-aged were region and fee, and those of the aged were region, leisure attitude and fee. The factors affected on the leisure satisfaction of the middle-aged were number of the family, region, and the access of the transportation

as compared with those of the aged were sex, health status, and the access of transportation. And the factors had effects on the leisure effect of the middle-aged were sex, educational attainment, number of the family, the access of transportation, and fee, comparing with those of the aged were educational attainment and leisure attitude.

I. 문제의 제기

인구의 노령화와 노령화 시대에서의 노후대책은 현대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이다. 오늘날 연소인구의 비율이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노인인구의 비율은 지속적인 증가현상을 보여 2000년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60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1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화 이전 사회에서 노인은 오랜 경험과 연륜에서 오는 권위 등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았으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산업사회에서 노인의 역할은 감소되기 시작하였고, 노년층은 끊임 없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게 되었다. 현재 노년층은 일제 치하와 6.25 전쟁, 서구문화의 유입과 같은 격동기에 청장년기를 보내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편입하여 일터에서 일에만 몰두하여 왔으며, 자신의 노후를 위한 부와 정신적 여유를 축적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중년기를 보낸 결과 개인적으로 대응할 능력과 사회경제적 자원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한편, 중년층은 노년층보다는 경제적으로 나은 환경에서 성장하였으나,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보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구세대와 근대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신세대의 중간에 위치한 중간세대이다. 즉, 이들은 부모세대를 부양하고자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자녀세대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 부양 및 자신의 노후부양을 위한 경제적 부담 및 진수기 이후 부부만의 독립기간이 길어지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이들의 중노년기의 독립적 부양을 위한 생활대책은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다.

노년기의 생활문제는 시간, 금전, 공간과 에너지의 각 생활요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데, 이 중 시간은

노인이 은퇴와 사회관계의 위축으로 인해 증가한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것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줄 정도로 중요한 생활문제로 대두된다(홍성희 외, 1997)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그러나, 동일 연구에서 자신의 여가생활에서 문제를 높게 인지하는 노인일수록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가계획은 적게 세우는 것으로 나타나 여가생활에 대한 대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풍요로운 노년기를 위해서는 중년기부터 다양한 취미활동, 사회봉사활동, 사교활동 등을 통해 사회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자신의 생활양식을 만들어 나가는 생애경로 전 과정에 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노년기를 위한 여가계획과 여가참여는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의 부담이 이루어지는 중년기부터 시작되어 노년기까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통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한편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보장하는 다양한 제도와 시설이 필요하다. 즉, 중노년층은 여가에 대한 욕구와 선호를 갖고 있어도 여가 사회화 경험의 부족 및 비용부담, 여가활동능력과 기술의 부족, 적절한 프로그램의 부재 등 여러 장애요인으로 인해 실제로는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재간, 1984; 최성재, 1986; 이희범, 1994). 따라서 이들의 여가장애를 고려할 때 저렴하면서도 청장년층의 여가와 차별화된 여가프로그램이 지역적으로 고르게 공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여가프로그램의 공급은 공공적 성격을 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공급해야 하며 이들이 지원하는 공공적 여가시설과 프로그램의 공급은 중노년층의 복지를 위해 중요한 과제이다.

한편, 중년기와 노년기에는 이전 시기에 비해 여

가시간이 증가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인 여가욕구를 갖는다고 보겠으나, 각각 요구되는 발달과업과 여가 선호가 다를 뿐 아니라 현재 이들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공공시설의 여가프로그램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들의 여가행태의 차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노년기를 위한 여가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조사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되거나 지원되고 있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구민회관 등의 공공시설에서 제공되고 있는 여가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중노년층의 여가프로그램 참여실태를 조사하고, 중년층과 노년층의 여가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공공시설의 여가프로그램 개발과 공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중노년층에게는 적합한 여가정보를 제공하여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중노년기 여가의 특성과 실태

인구학적 측면에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중노년기 인구가 증가되며 자녀수의 감소로 인해 가족주위상 막내자녀 독립후 두 부부만 남는 중노년기가 장기화되므로 오늘날의 중노년 세대는 이에 대한 준비와 계획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중년기에는 가사노동의 부담이 줄어들고 자녀와의 관계가 독립적으로 됨에 따라 여가시간이 증가하는 데, Hayes 와 Stinnet(1971)는 중년기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으로 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배우자와 함께 지내는 시간의 증가, 보다 많은 자유, 그리고 자신의 재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 등을 들었다(유지영·김명자, 1996). 한편 중년기에 들어 여가욕구는 증가하지만,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지 못할 경우 자신에 대한 회의감 내지 자기부정으로 위기의식을 느낀다(김명자, 1995).

중년기에는 여가시간이 증가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루어 여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나, 성별에 따른 성역할과 사회적 역할의 차이로 인해 남성과 여성의

여가는 큰 차이를 보인다. 즉, 남성의 경우 직업으로 인해 여가시간이 한정되지만 직업 및 사회적 역할과 관련하여 여가활동의 범위가 넓고 유형이 다양하다. 여성의 경우 여가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자신에 대한 회의감 내지는 상실감이 더 크게 드러나고 여가활동에 참여하더라도 고령적인 성역할을 강조하여 흥미나 적성, 능력을 증진시키기 보다는 단기적인 오락 위주의 프로그램들에 집중된다(이기숙, 1996). 따라서 지금까지 중년기 여가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그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하여 이들의 중대된 여가욕구와 이에 비해 다양하지 못한 여가활동 참여, 낮은 만족도, 여가시설 및 프로그램의 부족 등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중년기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정우(1997)의 연구에서 중년기 여성은 긍정적인 여가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여가활동유형 중에서 소일활동을 가장 많이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가정지향활동, 사교활동, 종교활동, 자기개발활동의 순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개인적이고 소극적인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월평균소득, 가정자산, 생활수준인지도, 여가비용 등의 배경변인과 여가태도, 여가활동참여도가 이들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위계적으로 분석했을 때 배경변인의 설명력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중년기 기혼여성의 여가생활이 경제적 요인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임정빈 등(1995)의 중년기 가정의 생활실태 조사에서 중년기 여성의 여가활동 중 가장 높은 참여도를 보인 활동은 TV 시청으로서 이 활동은 거의 매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적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김외숙, 1991)와 비교할 때 사교활동참여도가 가정지향활동 참여도보다 높게 나타난 차이를 보이는데, 이러한 차이는 가사노동이 감소하며 사교활동에 대한 욕구가 커지는 중년기의 특성으로 보았다. 한편, 여가활동 중에서도 자기개발활동 참여도가 여가만족도와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반면 참여도가 가장 높은 소일활동인 텔레비전 시청과 여가만족도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아, 여가시간의 양보다 여가활동의 내용이 여가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서울시 중산층 주부들을 심층 면접한 강정희(1995)의 연구에서 주부들의 여가생활은 전체적으로 소비 지향적이고 유행성을 띄우는 것으로 여가욕구를 충족시키거나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조형(1993)의 연구에서는 스포츠, 문화활동, 학습활동 등이 주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가활동이나 프로그램의 확일성과 여가의 상업화로 인해 주부들의 프로그램 선택이 자발적이거나 하는 점과 이러한 여가활동을 통해 주부들의 자기개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회의적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 지적된 중년기 여성의 여가는 소일활동이나 가정지향적 활동에 편중되어 있고, 그 결과 여가활동에 참여하여 여가욕구를 충족시키거나 만족을 얻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어느 기관에서나 확일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가의 공급이 상업화됨에 따라 여가행태도 소비지향적이고 참여자의 경제적 요인에 의해 제약을 받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중년기의 적극적인 여가참여를 유도하고 이들의 여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며, 여가프로그램의 제공이 공공기관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개인의 여가비용의 장애나 사회적으로 소비지향화되는 여가행태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노년기에는 여가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므로 다양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Wallner(1973)는 노인의 여가활동이 정적이며, 참여도 또한 성인에 비해 낮다고 지적하였다. 노년기에 이르면 더 많은 여가시간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여가활동참여에 많은 장애를 갖게 되는데, 많은 연구(박재간, 1984; 최성재, 1986; 송정선, 1997)에서 여가비용이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즉, 노인들이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더라도 실제로는 경제력과 비용부담에 제약을 느끼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가활동에 대한 경험의 결여와 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노인들은 많은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이희범, 1994).

노인의 여가활동참여와 여가만족에 대한 홍성희(1998)의 연구에서는 노인들이 텔레비전 시청 및 라디오 청취, 휴식, 신문잡지보기 등 정적이고 소일적

인 활동에 주로 참여하는 한편 노인학교나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참여도는 현저히 낮았다. 그러나 여가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여가에 만족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년기 생활에서 여가활동의 중요성이 입증된 바 있다.

노년기의 삶의 질에 대한 박충선 등(1998)의 연구에서 노인들의 여가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낮은 편이었는데, 시차적으로 비교한 결과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과거보다 좋아졌고, 현재도 만족하는 편이지만, 미래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한편, 사회교육 및 평생교육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불만이었으나, 과거에 비해 점차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노년기 여가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노년기의 여가활동은 여가경험과 여가비용, 건강상태 등의 제약으로 인해 소일적이고 정적인 활동으로 제한되며, 결과적으로 여가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여가시간의 활용에 한계를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노인들의 미래 여가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낮게 나타난 것을 볼 때 이들의 여가욕구를 자극하고 여가제약을 공공적 차원에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여가프로그램의 개발과 공급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2. 중노년기 여가의 영향요인

여가활동은 시설이용자의 개인적 특성과 시설공급, 시설에 대한 차별화 의식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그 참여가 결정된다. 이 중 여가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이용자의 성별, 교육수준, 용돈 및 건강상태, 여가태도, 여가참여경험 등의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 가족수, 거주지역 등의 가계관련 요인을 들 수 있으며, 교통의 편리성, 수강료 등 여가환경과 관련된 요인을 들 수 있다.

여가행동에 있어 성별의 차이는 남녀의 성역할 및 사회적 역할의 상이, 지역 및 사회활동에 대한 흥미의 차이에 기인한다. 따라서, 성별은 여가참여유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여가활동을 위한 개인적 능력과 표현형태의 차이를 초래한다(Murphy, 1981). 노인의 여가활동유형에 대한 최성재(1986)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남자노인은 노인정·노인학교 참여, 화투

및 장기, 라디오 청취의 순으로 여가활동을 하는 반면, 여자노인은 집보기, 집안일, 친지 방문의 순으로 나타나 성별과 관련된 역할수행이 여가활동에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Maas(1975)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초기성인기에 발달시킨 여가활동양식을 지속시키는 경향이 더 크다고 함으로서 남성의 여가활동의 장기화 및 일관성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 그리고 여가성향이 다를 수 있다.

교육수준은 여가활동에 대한 필요성과 참여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Wippler(1988)는 교육수준이 높은 계층일수록 여가활동의 양이 많고 질이 높으며 형태가 다양하다고 밝혔다. 중년기를 대상으로 여가활동유형별 참여도를 조사한 이정우(1997)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정지향활동, 자기개발활동, 종교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이선미(1991)의 연구에서도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들이 여가활동에 더 참여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홍성희(1998)의 연구에서 여가에 대한 만족도 역시 교육수준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노인들의 경우 동거가족의 구성과 수에 의해 영향을 받게되는 가계소득보다 자신을 위해 소비할 수 있는 용돈이 실질적인 경제지표가 될 수 있는데, 용돈이 증가함에 따라 여가활동의 범위도 넓어지고 여가참여도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송정선(1997)의 연구에서 노인의 용돈이 여가활동참여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나 홍성희(1998)의 연구에서 노인의 월평균용돈이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된 결과를 통해 용돈이 여가활동참여와 여가만족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족수 또는 자녀수는 개인의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기혼여성의 경우 동거하는 가족수와 자녀수가 많을 경우 이들을 위한 가사노동과 양육의 부담으로 인해 여가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반면 중년기 이후에는 가사노동원으로 작용하던 자녀의 독립이 이루어지고 가족수가 감소함으로써 이들의 여가 추구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중노년기에 있어 건강은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Parker(1976)는 건강상태가 노년기 여가활동을 폭넓게 유지시키고 여가참여빈도를 유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는데, 홍성희(1998)의 연구에서도 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여가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며, 여가활동에 많이 참여함으로써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여가참여에 영향을 준다. 거주지는 여가기회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농촌거주노인과 도시거주노인의 여가활동실태를 비교한 김형식(1983), 최성재(1986)의 연구에 의하면, 거주지역에 따라 여가활동유형과 참여도에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지역에 따라 여가시설과 여가프로그램의 공급에 차이가 있고, 결과적으로 개인의 여가참여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긍정적인 여가태도는 개인의 여가수요 결정을 자극하고, 여가참여를 유도한다. 여가태도와 유형별 여가참여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이정우 등(1997)의 연구에서는 소일활동과 종교활동은 여가태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던 반면 가정지향활동, 자기개발활동, 사교활동은 여가태도와 정적 상관을 보여 긍정적인 여가태도가 창조적이며 자아발전을 위한 여가활동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하였다.

Crawford 등(1987)은 여가활동에 대한 이전의 사회화 경험을 개인의 여가활동에 작용하는 심리상태로서 여가행동을 제한하거나 유도하는 요인으로 포함시켰다. 따라서 과거에 여가활동에 참여했던 경험을 가졌을 때 현재의 여가활동참여의식과 참여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데, 실제로 중노년층은 여가활동을 즐겼던 경험의 결여로 주어진 많은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실정으로(이희범, 1994), 과거의 여가참여경험의 결여는 여가참여에 제약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수강료는 여가시설의 이용과 여가자원의 접근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여가활동참여에 장애를 초래하는 제약요인이기도 하다. 노인의 여가에 관한 실증연구(최성재, 1986; 이선미, 1991; Perterson, 1973)에서 여가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로서 비용문제가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중년층

을 대상으로 한 이정우(1997)의 연구에서는 여가비용이 적을수록 소일활동에, 여가비용이 많을수록 자기개발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서 여가활동의 유형에 따라 여가비용 및 수강료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암시되었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교통수단의 보급과 신속화는 여가에 직접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적절한 교통수단은 여가시설이나 여가자원への 접근성을 증가시키며, 여가활동의 광역화를 도모한다. 반면 교통수단의 이용이 불편하면 시설への 접근도가 떨어지며, 특히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노인들의 경우 교통수단의 편리성은 시설을 이용하고 여가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지역의 노인종합복지관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최금숙(1997)의 연구에서는 교통이 불편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8.6%로 나타나 차량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및 측정도구

개인은 여가에 대한 가치 및 욕구에 의해 여가참여를 동기화시키며, 자신의 가계관련 특성과 심리적 특성, 여가공급과 관련된 환경적 특성 등의 영향을 받아 특정여가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여가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여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만족을 얻고 효과를 인지하는 것으로서 참여 결과를 평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년층과 노년층이 충분한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공공시설에서 제공하는 여가프로그램의 주 이용자이며 동시에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중년기와 노년기가 공공시설에서 이용하는 여가프로그램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정도, 만족도, 그리고 효과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중년기와 노년기의 여가이용실태에 차

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중년기와 노년기의 참여여가프로그램 및 희망여가프로그램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중년기와 노년기의 여가프로그램 참여도, 여가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그리고 여가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효과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위에서 제시한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사용한 독립변수로는 개인 및 가계관련 특성, 심리적 특성, 그리고 여가환경적 특성이 있다. 개인 및 가계관련 특성에는 성별, 교육수준, 용돈, 동거가족수, 건강상태, 거주지역 등이 포함되며, 심리적 특성에는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태도, 여가참여경험, 그리고 여가환경적 특성에는 교통수단의 편리성과 수강료가 포함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구체적인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은 <표 1>과 같다.

2. 연구방법

1) 자료 및 표본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서울과 대구에 거주하며 공공시설에서 개설하는 여가프로그램을 수강하는 40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으로, 지역과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유의적 표본추출 방법에 의해 표집하였다. 조사대상을 중노년층으로 제한한 것은 여가행동의 측면에서 볼 때 이들이 자녀양육 및 가사노동의 책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많은 여가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통점을 가지며, 공공시설의 이용대상자가 주로 중년층에 집중된다(한국여성개발원, 1998)는 점에서 중년기 이상이 공공시설에서 개설되는 여가프로그램의 주 이용자이며 잠재이용자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여가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공공시설로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구민회관(대구광역시시의 경우 문화회관, 문화전당)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들은 지역주민의 복지 및 교양·문화활동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차별화되며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지역적인 격차가 적다는 공통점을 갖기 때문이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는 1999년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변 수	정의 및 측정방법
종속변수	
여가프로그램 참여도(1문항)	현재 참여중인 여가프로그램의 수
여가프로그램 참여효과(10문항)	현재 여가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인지된 교육효과 및 생활상의 변화 1=전혀 그렇지 않다 3=그저 그렇다 5=매우 그렇다
여가프로그램 만족도 (6문항)	현재 여가프로그램의 내용, 기간, 전문성, 운영방법, 비용, 시간대에 대한 만족도 1=매우 불만족 3=보통 5=매우 만족
독립변수	
개인 및 가계관련변수	
성별	조사대상자의 성별 : 1=여 0=남
교육수준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 1=중졸이하 2=고졸 또는 초대졸 3=대졸이상
용돈	조사대상자의 월평균용돈(만원)
가족수	동거가족수(명)
건강상태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인지 1=매우 나쁘다 3=보통이다 5=매우 좋은 편이다
거주지역	조사대상자의 거주지역 : 1=서울 0=대구
심리적 변수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태도(8문항)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태도 1=전혀 그렇지 않다 3=그저그렇다 5=매우 그렇다
여가참여경험	과거 여가프로그램 참여수
여가환경적 요인	
교통수단의 편리성	교통수단의 편리성에 대한 인식
수강료	월평균 수강료(천원)

9월 27일부터 11월 26일에 걸쳐 실시하였는데, 본조사는 서울의 4개 공공시설, 대구의 6개 공공시설을 방문하여 6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연구자 및 조사원이 직접면접을 통해 질문지를 작성하였고, 60세 미만자의 경우 직접면접과 자기기록법을 병행하여 작성한 381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리고 참여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앞서 연구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VIF 값은 10미만으로 나타났다.

IV. 결과 및 해석

2)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PC SAS program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여가프로그램참여실태 및 희망 여가프로그램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으며, 중년기와 노년기의 집단간 차이 분석을 위하여 χ^2 검정과 T-test를 하였다. 또한 여가프로그램 참여도, 참여만족도, 그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령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중년기의 평균 연령은 45.0세인 반면 노년기는 69.5세였으며, 중년기는 여성이 92.1%로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노년기의 경우 남성이 47.5%, 여성이 52.5%로 거의 비슷하였다. 이는 중

년기 집단은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이므로 대다수의 남성은 임금노동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중년기의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이 43.6%, 고졸 및 초대졸이 41.7%인 반면, 노년기의 경우 중졸 이하가 53.4%, 고졸 및 초대졸이 31.3%로 노년기의 교육수준이 중년기에 비해 낮았다. 용돈은 중년기의 경우 월 평균 22만 1천원이었으며, 노년기의 경우 26만 5천원으로 중년기에 비해 노년기의 월 평균 용돈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년기의 경우 자녀교육비 및 생활비 지출이 높은 시기이므로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용돈의 여유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노년기의 경우 생활비의 지출이 적으며, 노후의 안락한 생활과 여생을 여유있게 보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고 최근 노인들중 연금이나 노후생활자금을 계획적으로 준비하여 경제적으로 여

유있는 집단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태도는 중년기 4.03점, 노년기 3.91점으로 중년기가 여가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으며, 과거에 참여하였던 프로그램의 수는 중년기 1.78개, 노년기 1.39개로 중년기가 더 많았다. 여가프로그램 참여효과를 보면 노년기가 여가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얻게 되는 교육적 효과와 생활상의 변화가 더 많다고 한 반면, 만족도는 중년기가 여가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더 큰 만족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년층의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과 욕구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여가프로그램은 노년기 1.77개, 중년기 1.41개로 시간의 여유가 많은 노년기의 여가 참여 프로그램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와 달리 수강료는 중년기의 경우 월 평균 2만 4천원, 노년기의 경

〈표 2〉 조사대상자의 특성

범주형 변수	중년기 (N=218)		노년기(N=163)		x ²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성 별					
남	16	7.9	77	47.5	73.87***
여	186	92.1	85	52.5	
교육수준					102.92***
중졸이하	32	14.7	87	53.4	
고졸, 초대졸	91	41.7	51	31.3	
대졸이상	95	43.6	25	15.3	
지 역					9.96**
대구	124	56.9	120	73.6	
서울	94	43.1	43	26.4	
연속형 변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value
연령	45.0	4.90	69.5	4.57	-48.89***
용돈(만원)	22.1	19.8	26.5	17.3	-1.96*
동거가족수	3.78	1.04	2.87	1.57	6.39***
건강상태(1-5점)	3.36	0.86	3.27	1.01	0.98
교통수단의 편리성(1-5점)	3.53	1.09	3.56	1.29	-0.22
여가태도(1-5점)	4.03	0.57	3.91	0.58	2.33*
과거여가 경험	1.78	1.25	1.39	1.34	2.74**
참여효과(1-5점)	3.63	0.70	3.90	0.62	-3.86***
프로그램 만족도(1-5점)	3.98	0.60	3.81	0.75	2.37*
여가프로그램 참여도	1.41	0.71	1.77	1.16	-3.37***
수강료(천원)	24.0	16.8	7.17	8.93	12.11***

* 결측값으로 인해 빈도에 차이가 있음.

우 8천 9백원으로 참여 프로그램 수와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일부 시설에서는 노인에게 복지차원에서 무료로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수강료를 받는다 해도 수강 강좌 수와 관계없이 기별 회비의 형식으로 저렴한 비용만을 받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년기와 노년기의 일반적 특성은 건강상태와 교통수단의 편리성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 참여 여가프로그램 분석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이 현재 시설에서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중년기의 경우 미술, 취미교실, 음악, 식생활, 건강, 어학 및 컴퓨터, 자격증반 및 꽃집경영반의 순으로 참여정도가 높았으며, 노년기의 경우 취미교실, 음악, 생활체육, 건강, 미술의 순으로 참여정도가 높았다.

즉, 중년기의 경우 여가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자아실현과 가정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하며, 또는 앞

<표 3> 참여 여가프로그램 분석

프로그램명	중년기		노년기	
	빈도	%	빈도	%
생활체육 (에어로빅, 수영, 스포츠댄스, 당구 등)	30	9.8	46	16.0
미술 (서예, 사군자, 서양화, 도예 등)	47	15.3	30	10.4
음악 (가요, 민요, 음악감상, 악기다루기 등)	42	13.6	57	19.8
건강 (수지침, 단전호흡, 요가 등)	34	11.0	36	12.5
의생활 (자수, 홈패션)	3	1.0	2	0.7
식생활 (취미요리, 제과제빵)	37	12.0	1	0.3
자녀교육 및 봉사 (구연동화, 독서지도, 자원봉사)	4	1.3	5	1.7
어학 및 컴퓨터 (한글, 영어, 일어, 중국어, 컴퓨터)	34	11.0	20	6.9
취미교실 (수공예, 메이크업,교양강좌, 바둑, 장기 등)	44	14.3	91	31.7
자격증반, 꽃집경영반 (조리사자격증, 도배자격증 등)	33	10.7	0	0.0
계	308	100.0	288	100.0

* 누적빈도를 적용함

으로 부업이나 창업의 기회를 모색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반면 노년기의 경우 개인을 위한 시간소일적인 취미활동이나 건강유지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취미교실이나 생활체육 등의 여가프로그램 참여가 높은 반면 자격증반 및 꽃집경영과 같은 프로그램에는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았다. 또 식생활 관련 여가프로그램의 경우도 중년기는 12.0%가 참여하는 반면 노년기는 0.3%만이 참여하고 있어서 중년기와 노년기의 여가프로그램 선택의 기준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년기와 노년기를 위한 여가프로그램이 차별화되어 공급되어야 할 것이다.

3. 희망 여가프로그램 분석

조사대상자들이 앞으로 공공시설에서 참여하고자 희망하는 여가프로그램은 <표 4>와 같다. 중년기의 경우 희망하는 여가프로그램은 컴퓨터 및 생활체육, 음악, 식생활, 어학 그리고 자녀교육 및 봉사인 반면, 노년기의 경우 음악, 생활체육, 어학, 전통문화, 미술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년기의 경우 현재 취미 위주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경향이 높은 것과 달리 컴퓨터, 어학, 자녀교육강좌 등의 학습형 프로그램 참여를 선호하고 희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노년기의 경우는 자녀교육 및 가사노동

<표 4> 희망 여가프로그램 분석

프로그램명	중년기		노년기	
	빈도	%	빈도	%
생활체육 (에어로빅, 수영, 스포츠댄스, 당구 등)	116	14.5	53	18.6
미술관련 취미활동 (서예, 사군자, 서양화, 도예 등)	72	9.0	30	10.5
음악관련 취미활동 (노래부르기, 음악감상, 악기다루기 등)	109	13.6	57	20.0
전통문화관련 취미활동 (민요, 창, 탈춤, 한국무용 등)	61	7.6	35	12.3
의생활관련 취미활동 (양재, 한복, 홈패션)	51	6.4	10	3.5
식생활관련 취미활동 (취미요리, 제과제빵)	107	13.4	14	4.9
자녀교육 및 봉사 (구연동화, 독서지도, 자원봉사)	79	9.9	17	6.0
어 학 (한글, 영어, 일어, 중국어)	89	11.1	41	14.4
컴 퓨 터 (초보활용, 인터넷, 홈페이지 등)	116	14.5	28	9.8
계	800	100.0	285	100.0

* 누적빈도를 적용함

에서 벗어나 증가된 개인시간을 활용하는 것을 더 선호하며 가족을 위한 것보다는 자신의 취미활동과 건강관리를 위한 여가프로그램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년기의 희망 여가프로그램 중에서 어학과 컴퓨터교육을 희망하는 것은 노인들의 교육수준의 향상과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

4. 여가프로그램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년층과 노년층이 공공시설의 여가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중년층의 여가프로그램 참여도에는 거주지역과 수강료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노년층의 경우 거주지역, 여가태도, 수강료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중년층과 노년층 모두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그리고 수강료의 지출이 많을수록 여가프로그램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거주하는 중년층이 더 많은 여가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공공시설의 운영방침과 프로그램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시설설립이 오래된 서울지역의 거주자들의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와 참여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기업체, 사설학원, 학교 등의 다양한 사회교육프로그램 수강자를 대상으로 한 배성의 (1996)의 연구와 일치한다. 수강료 지출이 많을수록 여가프로그램 참여도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고가의 수강료를 지불해야하는 타시설의 여가프로그램과는 달리 공공시설에서 제공되는 여가프로그램의 경우 수강료가 저렴하고, 특정 시설의 노인대상 프로그램은 수강료가 무료이므로 개개인 이 저가의 프로그램

<표 5> 여가프로그램 참여도에 대한 중회귀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중년기 (N=218)		노년기 (N=163)	
		P.E. ^a	S.E. ^b	P.E.	S.E.
성별(남성)		-0.339	-0.131	0.069	0.029
교육수준(대졸 이상)					
중졸 이하		0.113	0.039	0.432	0.181
고졸 및 초대졸		0.060	0.041	0.192	0.069
월평균용돈		-0.002	-0.059	-0.001	-0.012
동거가족수		-0.035	-0.049	0.095	0.125
건강상태		0.017	0.020	0.099	0.085
거주지역(대구)		0.563	0.380***	1.009	0.362***
교통수단의 편리성		-0.067	-0.094	-0.023	-0.024
여가 태도		0.015	0.091	0.038	0.144*
과거여가경험		0.029	0.048	0.075	0.087
수강료		0.025	0.565***	0.042	0.319***
상수		0.676	0.000	-0.897	0.000
R ² (Adj-R ²)		.291(.242)		.401(.354)	
F - value		5.961***		8.025***	

* p < .05 ** p < .01 *** p < .001

a : Parameter Estimate

b : Standardized Estimate

을 여러 개 이용할 수 있다는 공공시설 여가프로그램의 이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정우(1997)의 연구에서 여가비용이 많을수록 자기개발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중년기와 달리 노년기의 경우 여가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여가프로그램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년기에 비해 노년기의 경우 시간의 여유가 많으며, 가족이나 기타의 요인에 의해 여가프로그램 참여를 방해받는 경향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중년기의 경우 여가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어도 여가프로그램에 참여하기까지 가사노동이나 자녀로 인해 여러 가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여가태도가 여가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홍성희(1997)의 연구에서 여가태도가 적극적이면서 여가제약이 적은 노인들이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높았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5. 여가프로그램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년기와 노년기 조사대상자들의 여가프로그램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표 6>과 같다. 중년기의 경우 동거가족수, 거주지역, 교통수단의 편리성이, 노년기의 경우 성별, 건강상태, 교통수단의 편리성이 여가프로그램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중년기의 경우 동거가족수가 많을수록,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보다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그리고 교통수단이 편리할수록 참여하는 여가프로그램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가족수가 많을수록 여가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은 것은 중년층 중에서도 자녀와 동거하는 진수기 이전 중년층이 진수기 이후 중년층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여가에 참여하며

<표 6> 여가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한 중회귀분석

독립변수	중년기 (N=218)		노년기 (N=163)	
	P.E.	S.E.	P.E.	S.E.
성별(남성)	-0.480	-0.039	2.082	0.239*
교육수준(대졸 이상)				
중졸 이하	-0.060	-0.004	0.999	0.115
고졸 및 초대졸	-0.263	-0.037	-0.663	-0.073
월평균용돈	0.001	0.007	0.027	0.106
동거가족수	0.575	0.168*	-0.088	-0.032
건강상태	-0.205	-0.050	0.712	0.166*
거주지역(대구)	-1.791	-0.251**	-1.061	-0.104
교통수단의 편리성	0.726	0.213**	1.210	0.357***
여가 태도	-0.059	-0.072	0.143	0.147
과거여가경험	-0.307	-0.106	-0.020	-0.006
여가프로그램 참여도	0.559	0.116	-0.359	-0.098
수강료	-0.028	-0.128	-0.054	-0.113
상 수	23.259	0.000	11.334	0.000
R ² (Adj-R ²)	.132(.066)		.266(.197)	
F - value	2.001*		3.864***	

* p < .05 ** p < .01 *** p < .001

이로 인해 만족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구지역 거주자들의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은 것은 공공시설 중에서도 지역에 따라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자들의 태도 및 기대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노년기의 경우 남성에 비해 여성이,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그리고 교통수단이 편리할수록 여가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여가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은 것은 현재 공공시설에서 제공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전문지식을 얻기 위한 교양, 교육강좌이기 보다는 취미활동 등에 치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성들의 정적, 수동적 여가성향과 부합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여가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은 것은 노년기의 경우 건강상태가 심리적, 신체적 행동의 제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노인의 여가장애 중 건강상태가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연구결과(이현숙, 1994; 신정화, 1995)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교통수단의 편리성은 중년기와 노년기 여가만족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대상자들이 거주하는 구나 동 내에 공공시설이 위치해 있어도 대중교통수단이 연결되지 않거나 소요시간이 많은 경우는 시설 이용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만족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시설 홍보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적절한 교통수단과 연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6. 여가프로그램 참여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년기와 노년기의 여가프로그램 참여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표 7>과 같다. 중년기의 경우 성별, 교육수준, 동거가족수, 교통수단의 편리성, 수강료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 노년기의 경우 교육수준, 여가태도가 유의한 영향변수로 나타났다.

<표 7> 여가프로그램 참여효과에 대한 중회귀분석

독립변수	중년기 (N=218)		노년기 (N=163)	
	P.E.	S.E.	P.E.	S.E.
성별(남성)	-4.690	-0.189*	1.877	0.174
교육수준(대졸 이상)				
중졸 이하	6.913	0.251***	2.144	0.199
고졸 및 초대졸	3.265	0.232**	3.439	0.304**
월평균용돈	-0.010	-0.027	-0.033	-0.107
동거가족수	1.113	0.163*	0.199	0.058
건강상태	0.371	0.045	0.555	0.106
거주지역(대구)	-2.003	-0.141	1.267	0.100
교통수단의 편리성	1.121	0.165*	0.330	0.079
여가 태도	0.210	0.129	0.477	0.394***
과거여가경험	0.577	0.100	-0.285	-0.073
여가프로그램 참여도	0.722	0.075	0.167	0.037
수강료	-0.062	-0.145**	0.035	0.059
상 수	23.099	0.000	17.961	0.000
R ² (Adj-R ²)	.198(.138)		.362(.303)	
F - value	3.276***		6.111***	

* p < .05 ** p < .01 *** p < .001

중년기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대졸 이상에 비해 중졸 이하나 고졸 및 초대졸집단이, 동거가족수가 많을수록, 교통수단이 편리할수록 그리고 수강료 지출이 적을수록 여가프로그램의 참여 효과를 높게 인지하였다. 여성에 비해 남성의 여가프로그램 참여효과가 높은 것은 소수의 남성이 재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일부 개설되어 있는 야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기대한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교육수준이 대졸 이상인 집단에 비해 중졸 이하나 고졸 및 초대졸인 집단이 여가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는데, 이를 통해 조사대상 시설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이 교육수준이 높은 대상자들의 지적 욕구나 다양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거가족수가 많을수록 여가참여효과가 더 높은 것은 가족수가 많을수록 여가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았던 경향과 마찬가지로 자녀와 동거하는 중년층이 적극적으로 여가에 참여한 결과 참여효과도 더 긍정적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수강료 지출이 적을수록 참여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저렴하거나 무료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선호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수강료에 비해 효과를 긍정적으로 인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년기의 경우 대졸 이상인 집단에 비해 고졸 및 초대졸인 경우에, 여가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여가프로그램 참여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여가참여와 그 효과를 결정하는 것은 여가태도에 달려있다고 하여 여가태도의 중요성을 지적한 김광득(1994)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중년기와 노년기의 여가프로그램 참여효과를 비교해본 결과 중년기의 경우는 교육수준이 참여효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반면, 노년기의 경우는 여가태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또 중년기의 경우 참여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 및 가족관련 특성과 여가 환경적 특성이었으나 노년기의 경우는 심리적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나타냈다. 따라서 중년기와 노년기의 경우 여가프로그램 참여 효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년기와 노년기의 공공시설의 여가프로그램 참여도, 만족도, 참여효과를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연령에 따른 여가활동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각 연령층에 적합한 공공시설의 여가프로그램의 개발과 참여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중년기와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 및 여가관련 환경적 특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의 표본 중 중년기의 경우 노년기에 비해 여가태도가 긍정적이며, 과거에 참여한 여가프로그램의 수가 많고,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으며, 수강료 지출이 많았다. 반면 여가프로그램 참여 효과는 노년기에 비해 낮았으며,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여가프로그램의 수도 적었다. 중년기의 경우 여가태도가 긍정적이며 만족도가 높으나 참여 효과가 낮은 것은 공공시설에서 제공되는 여가프로그램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나 교육효과를 얻거나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받을만큼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얻는다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중년층이 지속적으로 여가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참여효과를 얻을 수 있는 여가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중년기와 노년기의 여가프로그램 참여도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거주지역과 수강료였다. 이는 지역에 따라 시설 및 개설된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및 인지도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지역 주민의 특성 및 그들의 요구에 적합한 여가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지역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수강료가 많을수록 참여도가 높은 것은 비용이 여가참여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일반 여가프로그램과는 다른 경향인데, 이는 수강료가 저렴한 공공적 여가프로그램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앞으로도 수강료 저가정책과 저소득층의 수강료

무료화 등의 방안을 통해 더 많은 중노년층의 이용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중년기와 노년기의 여가프로그램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공통적인 것은 교통수단의 편리성이었다. 따라서 교통수단은 모든 이용자들에게 이용가능성과 이용의 편리성을 결정케하는 중요한 환경적 요인으로서 공공시설의 위치는 시설의 계획 및 설립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조건이며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 또는 자체 교통수단의 운영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노년기의 여가프로그램 만족도에 차이를 가져오는 변수 중 건강상태는 주목할만하다. 즉, 중년기의 경우 건강상태가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으나, 노년기의 경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결과를 통해 건강상태가 노년기의 여가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노년기를 위한 여가프로그램 계획시 노화상태나 건강상태를 고려하며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을 강화시켜 성인기와 차별화된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거동이 불편하여 공공시설 이용이 곤란한 재가노인들을 위해 방문형 여가프로그램이나 가정내 여가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여가프로그램 참여효과에는 교육수준이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는데, 중년기와 노년기 모두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참여효과를 낮게 인지하였다. 따라서 이들이 기대하는 다양한 유형과 수준의 여가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중년기의 경우 컴퓨터, 어학교육에 대한 요구도를 충족시키는 교육형 프로그램이나 노년층의 재취업교육, 재테크 및 건강관리강좌 등을 운영한다면 수준 높은 중노년층의 여가욕구를 질적으로 충족시키는 한편 이들의 생활과제를 모색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가프로그램 참여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중년기를 대상으로 하는 여가프로그램의 경우 취업자와 남성의 참여를 유도하는 시간대 배치 및 강좌의 내용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의 결과는 중년기와 노년기의 여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유사성과 상이함을 각각 보여주고 있다. 즉, 여가프로그램 참여도에

는 거주지역과 수강료가 주 영향요인이었던 점이나 프로그램 만족도에는 교통수단의 편리성이, 참여효과에는 교육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동일한 변수로 나타난 결과를 통해 저렴한 수강료와 편리한 교통수단은 공공시설이 이용자를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생각된다. 한편, 중년기는 노년기와 달리 가족수가 여가프로그램 만족도와 참여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부각되었는데, 가족수가 많을수록 만족도와 참여효과가 높은 것을 통해 이들이 중년기 이전과 달리 자녀양육의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여가추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경향을 볼 수 있으며 앞으로 진수기 이후의 연령층 뿐 만 아니라 자녀와 동거하는 연령층의 여가에 대한 관심을 지역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등 사회적, 공익적 관심으로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노년기는 중년기와 달리 긍정적인 여가태도가 여가참여도 및 참여효과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었는데, 노년기의 바람직한 여가생활을 위해 중년기부터 여가생활을 계획하고 여가경험을 확대시키며 바람직한 여가관을 갖도록 유도하는 여가교육이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의 자료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중년기와 노년기만을 대상으로 표집한 것이므로 사설기관이나 노인대학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제외되었다. 또한 공공시설의 여가프로그램 운영시간이 주로 낮 시간 이므로 중년기 이용자의 대부분이 여성으로 한정되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여가프로그램 제공 주체에 따른 참여자들의 요구와 남녀의 여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중년기와 노년기의 여가행동의 일반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중노년 개개인에게 여가프로그램의 참여를 유도하며, 노후생활계획과 관련된 자료로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공공시설에서 중년과 노년의 건강상태 및 심리상태, 그리고 선호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여가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책적으로는 공공시설의 설립과 운영시 주민특성을 고려하며 공공시설간의 프로그램의 연계성을 높여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강정희(1995) 중산층 주부의 여가에 대한 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청구논문.
- 강준렬(1997)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관. 서울:도서출판 동인.
- 김광득(1990) 현대여가론. 서울:백산출판사.
- 김순미·홍성희(1996) 여가비지출이 여가만족도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 김태현(1994) 노년학. 서울:교문사.
- 김홍록(1994) 노인을 위한 여가정책 개발에 관한 연구. 국민대 박사학위논문.
- 김형식(1983) 농촌노인의 생활실태와 여가선용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연구. 중앙 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재간 (1984) 노인여가시설 및 프로그램에 관한 조사 연구보고서. 한국노인문제 연구소.
- 박충선 외(1998) 노년의 삶의 질에 대한 시차적 분석과 영역별 상대적 중요. 학술진흥재단 연구 보고서
- 송정선(1997) 노인의 여가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경희 (1997) 잠재적 지역문화시설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유지영·김명자(1996) 중년기 부인의 사회적 지원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 이기숙(1996) 중년기 여성의 사회활동에 관한 일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 이선미(1991) 중·노년기 여가활동유형과 인생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성희·이승미(1999) 가정복지 실천의 장으로서 사회복지관 효용성 연구: 전주시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요구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2).
- 이정우(1997) 중·노년기 기혼여성의 여가태도 및 여가행동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
- 이현숙(1994) 노인의 여가활동 효과 및 만족도에 관한 조사연구. 국민대 교육대 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희범(1994) 노인의 바람직한 여가선용을 위한 고찰. 홍익논총 26집.
- 임정빈 외(1995) 서울시 아파트 거주 중년기 가정의 생활실태와 문제(Ⅲ): 시간 사용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3(5).
- 조형(1993) 한국가족에서의 여성 : 주부의 삶을 중심으로. 「한중 여성의 지위」. 제 1차 동북아 여성학술대회 자료집.
- 배성의(1996) 한국성인의 사회교육 참여정도와 그 관련변인 분석.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성재(1986) 노인의 생활만족도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49권.
- 최금숙(1997) 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서울시립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국여성개발원(1998) 지역사회여성성을 위한 구민회관 활용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 홍성희·김성희(1997) 노인의 여가태도 및 여가계약 유형에 따른 여가활동참여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 홍성희(1998) 노인의 여가활동참여와 여가만족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5(3).
- Crawford, D.W., G. Godbey (1987). "Reconceptualizing barriers to family." *Leisure Sciences* 9.
- Freysinger., V.,(1995) The Dialectics of Leisure and Development for Women and Men in Mid-life : An Interpretive Study,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7(1).
- Freysinger., V. & R.O. Ray(1994) The Activity Involvement of Women and Men in Young and Middle Adulthood: A Panel Study. *Leisure Studies*(16).
- MacGuire, F.A.(1982) *Leisure Time, Activities, and*

- meaning : A Comparison of Men and Women in Later Life.* NY: Praeger.
- Mass, H.S., & Kuypers, J.A.(1975) *From thirty to senventy.* San Francisco: Jossey-Bass.
- Parker(1976). *The Sociology of Leisure,* London: Geory Allen and Unwin Russel, A. Ward and Susan, R. Serman(1984), "Subjective Network Assessment and Subjective Well-being". *J. of Gerontology* 39(1).
- Riddick, C. C., & Daniel, S. N.(1984)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Leisure Activities and Other Factors to the Mental Health of Older Women, *J. of Leisure Research* 16(2).
- Sneegas, J. J.(1986) Components of Life Satisfaction in Milled and Later Life Adults ; Perceived social competence, leisure participation, and leisure satisfaction, *J. of Leisure Research* 18 (4).
- Schmitz-Scherzer, R. & Thomae, H.(1983) *Constancy and Change of Behavior in Old Age: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NY: W.W. Norton.
- Tinsley, T. &E. Kaufman(1985) A System of Classification Leisure Activities in Terms of the Psychological Benefits of Participatopn Reported by Older Persons, *J. of Gerontology,* 40 (2).
- Wippler, R.,(1968) *Social Determinants of Leisure Behavior.* Assen : Van Gorcum.l